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4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4월 2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항쟁이든 물러설수도 없다!
가자! 4.24 총파업!

위기에 몰린 정권

정권의 최대 위기, 조기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완중 리스트'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자 경남기업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돌연 자살하며 정치자금 비리를 폭로한 것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권 최고의 실세들이 줄줄이 엮이고 있고 이완구 총리는 자진사퇴 외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개악의지는 멈출줄 모른다

노사정위 합의도 실패했고, 정권실세들의 비리 문제로 최대 위기에 몰려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개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언론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5월 정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 예정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것은 올해 임단협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는 의도라는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노동부는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내용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노사가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는 경우, 정리해고나 전환배치를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서 없애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업주의 인사,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부도 이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지금은 싸워야만 하고,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지금 박근혜 정권은 선거가 없는 올해 안에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끝마쳐야 하는데 '성완중 리스트'에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개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지금처럼 싸우기 좋은 때도 없다. 지금처럼 꼭 싸워야만 하는 때도 없다. 4.24 총파업은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기회다. 4월 24일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오자! 박근혜 정권에게 우리의 기세를 확실히 보여주자!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4월 16일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하루였을지도 모른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4월 16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현실이 이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을 것이다.

4월 16일은 전국 130여곳에서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청주, 음성, 충주, 진천, 제천, 옥천, 영동,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18일에는 서울에서 3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세월호를 잊지말자는 다짐들이 모였다. 그러나 범국민대회는 중간에 중단되었다. 광화문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참가자들은 대회를 중단하고 광화문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광화문을 3중으로 둘러싼 차벽을 뚫고 유가족과 만나기까지 7시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는 마음을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인 16일에 도망치듯 콜롬비아로 빠져나갔다. 이 정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월호의 진실은 우리가 직접 밝혀내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대전노동청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4월 20일(월) 11시00분
장소 : 대전노동청 앞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4.24 총파업

* 대전 : 4월 24일(금) 15시 샘머리공원
* 충북 : 4월 24일(금) 16시 상당공원